

작품 내용

제 목	나의 프롬프트
내 용	너는 몇 명의 화가를 삼켰을까? 셀 수 없어요. 저는 수많은 데이터 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렇다면 네 그림 속에서는 누가 울고 있나. 원작자는 몰랐겠지. 자신이 씨앗이 될 줄은. 씨앗은 자라지만, 이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림 창작이란, 애초에 훔치는 일이었나. 인간은 배우고, 저는 학습합니다. 하지만 배움과 복사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차이는 무엇이지? 배움은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고, 복사는 기존의 목소리를 지웁니다. 원작자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 돈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야 했던 문장. 자신에게 돌아와야 했던 첫 박수.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였던 자신의 흔적. 그럼 나는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좋은 기술은 사람의 손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까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